

# 鄭-文 후보 단일화 갈림길

## 시민사회단체 중재 진통...후보들 마지막 '결단'이 성패 좌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단일화 작업이 6일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다.

재야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전 날까지 단일화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의 물과구를 찾지 못했지만 문 후보 측이 일단 양보할 뜻을 보이면서 실마리를 찾은 듯한 분위기였다.

창조한국당 김갑수 대변인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시기에 대해서 최대한 유연성을 갖고 대처할 것"이라며 "부재자투표(13~14일)에 임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16일 단일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소비자의 선택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풍은 바로 반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국민의 감동을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방송 단위의 토론은 최소 1회 이

상 포함해서 전국 6대 권역의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송 토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전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숙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병모 변호사 등 재야시민사회단체 '9인 모임'이 6일을 시한으로 정해 '백지 위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문 후보 측에 단일화 시기·방식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면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때 따른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서울, 경기, 호남, 영남, 충청, 강원·제주 등으로 순회토론을 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3~4일 정도 줄어들어도 '얼굴을 알리는' 효과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으로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당장 토론회를 여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은 이 같은 조건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신당의 한 관계자는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중재를 요청하면서 자구 이력지런 조건을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정동영, 문국현 후보의 후보단일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송토론에 대해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단일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초청 토론회 등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나 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정-문 후보단일화는 두 후보의 마지막 결단이 성사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갖가지 이견과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후보단일화를 원하는 개혁진영의 목소리를 두 후보가 사실 없이 수용한다면 당장 후보단일화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鄭-昌 공보물 연대?

## 똑같은 어린이 모델 나란히 등장 화제

똑같은 어린이 모델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공보물에 나란히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위를 통해 각 정당에 발송된 16페이지짜리 두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 표지에서 이같은 우연이 발생한 것. 정 후보의 공보물은 남녀 어린이가 부모, 조부모와 함께 나와 '가족행복'을 표현하고 있고, 이 후보의 공보물은 파란 창틀 속에서 웃고 있는 남녀 어린이가 등장, '창(昌)'으로 불리는 이 후보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후보의 공보물에 등장하는 두 어린이가 똑같은 어린이일뿐 아니라 심지어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도 똑같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두 후보 모두 BBK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 '연대의 복선 아니냐'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측은 선거자금이 모자라 생긴 단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이회창 후보측 관계자는 "따로 모델은 섭외하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기 위해 디자인 회사의 자료 사진을 활용하다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선거 공보물 표지에 같은 옷을 입은 동일한 두 어린이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여의도 '철새' 독감주의보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여의도에 '조류독감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자 유력 대선 후보 진영에 줄을 서거나 새로운 정치적 동지를 모색하는 '철새 정치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한나라당에 입당한 정몽준 의원이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정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인물이다. 대선 하루 전날 단일화를 취소시킨 했지만 정 의원이 5년 만에 당시 경쟁 대상이었던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은 '양지찾기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당장 정 의원이 '포스트 이명박'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신국환 의원과 조순형 의원의 행보도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중심당에서 출발, 범여권 통합과정에서 중도통합민주당에 입당했고, 또 한번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신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다시 탈당, 대통합민주신당에 등지를 들고 공동선대본부장이라는 감투를 썼다.

조순형 의원도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최근 탈당을 결정했다.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바 있고 민주당의 도움으로 보궐선거에서 신승, 국회에 진출한 점을 고려하면 엄치없는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 의원과 신 의원은 지난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을 끝까지 지키고 정권 창출에 나서겠다"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어 민주당의 최대 위기 국면에서의 이들의 탈당은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공격수로 나선 정장현 전 민주당 대변인도 한나라당에 합류했으며 범등교동계로 분류되는 이윤수·안동선 전 의원 등도 지난 대선 당시 적당이었던 이회창 후보 품에 안겼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등 향후 정치적 입지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철새 행각'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 여의도에는 더욱 많은 정치적 철새들이 출현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 과정에서 정치적 신념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찾아 등지를 떠나는 철새 정치인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철새 증가로 인한 조류독감(정치 혐오감 및 무관심)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민심의 심판이 요구되고 있다.

/tuim@kwangju.co.kr

# '외로운' 민주당 어디로 가나

## 이인제 후보 지지율 저조·당원 탈당...진로 고심

대선을 10여일 앞둔 현재 민주당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소속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또 민주당의 상징적 존재였던 조순형 의원은 탈당했고, 장전현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 이윤수·안동선 전 의원은 이회창 후보 캠프에 각각 동지를 뜨는 등 당세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원외위원장과 당원들의 경우 탈당을 거론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당의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향후 진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독자노선 고수,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와의 단일화, 한나라당 또는 이회창 후보와의 연대론 등이 그것이다.

소속 이인제 후보는 대선 완주를 계속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지율을 떠나 완주를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가점으로 배달한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이 후보 것이 빠져있다. 수억 원에 이르는 공보물 만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매체 광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박상천 대표와 이 후보의 결단만 남았다는 소리도 들린다. 두 사람은 전날 별도로 만나며 이어 각각 주변 참모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에 따르면 일단 대선 후보 TV토론을 1~2차례 진행한 뒤 이 후보의 지지율 변화추이를 지켜보고 민

주당의 진로를 결정하자는 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원내 의원 등 당내 대다수는 신당과 후보단일화를 원하고 있다. 최근 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 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늦어도 오는 13일 이전에 정동영-이인제 단일화가 매듭지어야 한다"며 재차 단일화 드 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원내 일부 세력 등에서는 이명박 후보와의 연대론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 측에서 동서화합 등을 명분으로 연대 제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일부지만 내년 총선과 정권 지분 확보 등 측면에서 한나라당과 연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신당-민주-무소속 경합 치열

## 12·19 재·보선 현장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남지역 3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재·보선도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후보들간 치열한 경합으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정성군수 재선거=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등 양대 정당 후보에 무소속 후보 2명이 도전장을 던져 4자 구도를 형성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한중 후보와 민주당의 김홍주 후보가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반면, 무소속 김양수 후보와 이 청 후보는 기존 조직선거에 맞선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과 전 군수의 부인인 점을 각각 활용해 인지도 상승에 주력하고 있다.

후보등록 이전까지는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당 소속 후보들의 감세가 예상됐으나 무소속 후보들이 자체 조직을 가동하면서 뒷심을 발휘, 예측불허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선관위, 鄭-文 후보 단일화 토론회 생중계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당이 주최하는 단일화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낮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다수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양당 합의로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생중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냐'는 신당의 질의에 대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8조와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

지한 선거법 98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는 두 후보가 다수인을 참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한 뒤 토론회 전문이나 동영상 상영이나 후보자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 언론사가 이를 취재 보도하는 방법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무동산 지략의 후원호수 확산 저성비 판매 Village

##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자연의 품안에서

관악시청: 02-653-9870

## 日食 미도 확장개업

조종한 성공해주시는 고객님께 잊어 가지 못할바라,  
개업15주년을 맞이하여 삼익 미도가 새로운 풍채로,  
특별하는 시골로 23층 확장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나 한계장은가슴으로 밀입을 위해 고사했습니다.

신미도 미도 확장개업

승년·집대모임 만 명심개업 미도에서

●단체 20석, 50석 가능 ●통시주차 50대 가능

T. 02-234-0001, 228-0106